

정책연구 15-03

2015. 04.

# 대학 과잉교육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에 관한 연구

안준기

##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에서 “노동시장에서 취업훈련의 효과”에 관한 주제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 5월 이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분석센터에 재직하고 있다. 현재 관심분야는 대졸자 및 종사상 지위별 교육훈련의 효과와 고용안정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Half success, half failure in Korean Affirmative Action,(2010), with Joonmo Cho”, “비정규직 유형별 교육훈련의 임금효과 및 고용안정성 효과,2013(공동저자, 강순희)” 등이 있다.

## 대학 과잉교육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에 관한 연구

1판1쇄 인쇄 | 2015년 4월 8일

1판1쇄 발행 | 2015년 4월 13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150-8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전화 02-3771-0001(대표), 02-3771-0060(직통) | 팩스 02-785-0270~3

[www.keri.org](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5

ISBN 978-89-8031-727-1

5,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5011144)

## CONTENTS

본  
문  
목  
차

요 약	5
I. 서론	6
II. 선행연구	8
III. 기초통계분석	10
IV. 실증분석	20
V. 결론	27
참고문헌	30

## CONTENTS

### 표 목 차

[표 1] 대학 유형 구분	10
[표 2] 대학 등급별 졸업 인원 현황	11
[표 3] 대학 등급별 고용 현황	12
[표 4] 대학 등급별 월평균 임금	14
[표 5] 대학 전공별 월평균 임금	16
[표 6] 전공 및 대학 등급별 월평균 임금	17
[표 7] 취업률 분석결과	22
[표 8] 대기업 취업률 분석결과	23
[표 9] 임금수준 분석결과	24
[표 10] 회귀기반 분해결과	26

### 그 림 목 차

[그림 1] 연도별 대학 진학률 및 취업률	6
[그림 2] 연도별 대학 유형에 따른 취업률	13
[그림 3] 연도별 대학 등급에 따른 월평균 임금	14
[그림 4] 연도별 대학 등급에 따른 상대임금 비중	15
[그림 5] 연도 및 전공계열별 대학 등급에 따른 상대임금 비중	18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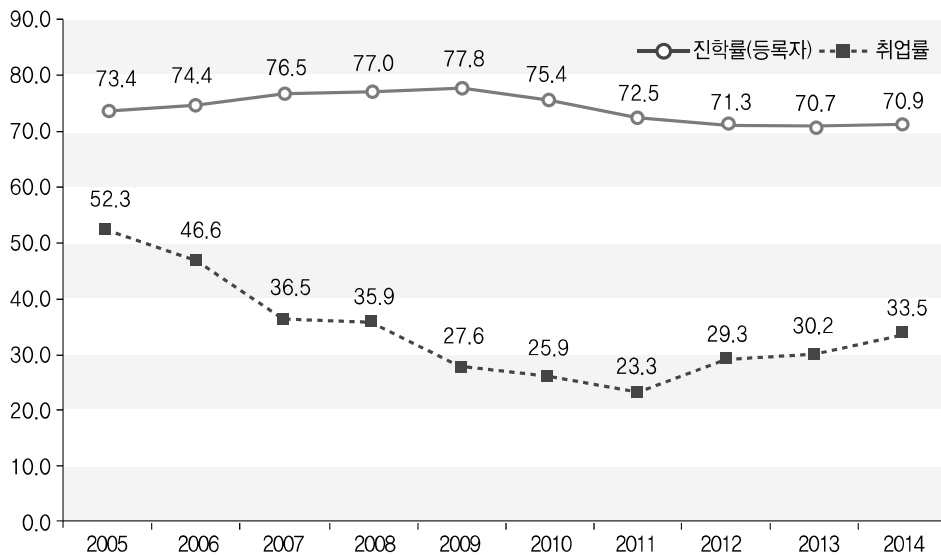
본 연구는 높은 대학 진학률로 대변되는 한국의 과잉 교육 현실에서, 학교 유형에 따른 노동시장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와 중앙일보의 대학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를 유형화하였고, 이러한 유형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시계열(2008, 2010, 2012)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학교 유형에 따른 취업(정규직 취업, 대기업 취업) 프리미엄 및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학교 유형 간 격차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4년제 기타 유형의 경우 노동시장의 신호기재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실화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한다.



# I. 서론

한국의 대학 진학률<sup>1)</sup>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 77.8%로 정점을 보이다 감소하여 2014년 현재 70.9%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23.3%를 저점으로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생의 특성상 진학 및 취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재수를 선택하기 때문에 취업률의 감소는 대입을 위한 준비생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연도별 대학 진학률 및 취업률



주 1: 진학률 = (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등록자)/당해년도 졸업자)\*100

주 2: 취업률 = {(당해년도 졸업자 중 취업자)/(당해년도 졸업자-진학자 수입대자 수)}\*100

자료: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 추이, 교육통계서비스, 교육부.

이러한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은 최근 완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14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학교 이수율과 대학

1) 대학 진학률 통계는 2010년 까지 대학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하지만 합격 이후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복수 지원에 따른 '허수'가 발생함에 따라 과대 추정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는 '대입 등록자 수'를 기준으로 진학률을 산출하고 있다.

교 진학률<sup>2)</sup>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나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여전히 사회적으로 고등 교육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과 선별가설(screening hypothesis)에 의하면 교육수준은 개인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적자본론에 따르면 교육에 의해서 축적된 인적자본은 노동시장에서 소득수준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선별가설에 의하면 교육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려내는 신호 기재(signaling)로 작용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가설이다.

따라서 과거의 대학교육은 그 과정을 경험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만 가지고서도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역량을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대리 지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에 와서 대학 설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학 진학에 대한 진입 장벽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대학교육 자체가 가지는 노동시장에서의 신호기재 효과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는 의미 없는 신호기재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대학 서열화 현상이 공고화 되었고, 하위권 학교들에 있어선 고등교육의 신호기재 역할이 붕괴되면서 이를 원인으로 하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학 정책에서 야기된 노동시장 양극화를 살펴보고, 대학교육이 노동시장에서 올바른 신호기재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갖고자 한다.

첫째, 기존 국내 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명문대 효과 즉, 학교·학과 등급별 임금 프리미엄을 측정하고자 한다.

둘째, 학교·학과별 임금 프리미엄의 유형별(등급별) 비교를 통해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있어 명문대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고, 양극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2008-2012의 5개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임금 프리미엄 및 소득 양극화가 어떠한 과정으로 변동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

2) '2014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25세에서 34세까지 우리나라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66%, 고교 이수율은 98%에 달했다. 반면 OECD 국가 평균치는 각각 39%와 82%였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학 이수율은 6년 연속, 고교 이수율은 2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 II. 선행연구

교육 수준이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로는 개인의 교육 수준과 소득 간 영향에 관한 연구 이론은 크게 4가지 관점(인적자본이론, 선별가설 이론, 이중노동시장 가설, 급진론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수준이 임금 및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은 주로 Mincer(1974)의 임금함수 추정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Becker, 1975; Mincer, 1974; 이정우, 1995 등).

교육과 노동시장 이행, 양극화에 관한 연구로는 최근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해 대학교육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선별효과 보다는 동일한 대학 교육 내에서 어떠한 차이가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고 학교, 노동시장 간 원활한 이행을 위해선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Rosenbaum, 1991; Maurice and Sorge, 2000). 장원섭 외(2000)에서는 대학성적이 서류전형에서 중요한 선발기준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대학지명도 또한 선발기준의 하나로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enda and Kurosawa(2001)는 일본의 경우 대학의 등급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경쟁력에 차이가 있으며 취업결정 요인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상당수의 연구가 속칭 명문대학 또는 대학 지명도와 관련하여 졸업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지적하고 있으며(이주호 외, 2003; 김진영, 2007) 노동시장에서의 지방대 졸업생의 어려움을 지적했다(류장수, 2003; 오호영, 2007). 이규용·김용현(2003)은 첫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임금수준을 비교한 결과 속칭 상위권 대학출신에 비해 중위권이나 하위권 대학 출신들의 첫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상위권 대학 출신일수록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에 선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존 연구자들은 대학졸업자의 취업성과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추정하였다. 하지만 개인특성에 관한 연구에 비해 대학특성이 대학졸업자들의 취업성과 및 일자리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은 그리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하지만 대학교육에 투자하는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대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설립유형, 규모, 소재지, 대



학의 목적을 포함해 교육의 여건 및 대학의 특성이 취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거나 특정 대학에 국한된 데이터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역시 중요한 연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기존연구들은 대학 소재지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경쟁력을 가진 지방대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년, 2010년, 2012년 시계열 자료와 중앙일보에서 매년 발표하는 대학순위를 통해 시간흐름에 따른 학력프리미엄을 전국단위로 분석해 기존의 횡단면 연구와 대학소재지로 구분한 연구를 보완했다.

### III. 기초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졸업 학교의 사회적 유형 즉, 학교 등급별 임금 프리미엄이 어떻게 나타나고 변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의 2008, 2010, 2012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는 2년제·4년제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 직장경험, 직업훈련 등에 대해 매년 조사하는 한국 최대 규모의 대졸자 조사이다. 조사는 최초 패널 구조로 설계되었으나 최근에 와서 조사의 목적이 횡단면 추정을 위한 목적으로 변동되어 시계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학졸업자의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및 가계배경 등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자료의 활용이 광범위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구분하기 위해 중앙일보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학평가 자료를 이용하였다. 크게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하였고, 4년제 대학교 내에서도 중앙일보의 대학평가에 따라 최상위권(rank1), 상위권(rank2), 중위권(rank3), 기타(rank4)로 나누었다. 대학교 가운데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교육대학이나 한국과학기술원, 포스텍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도별 대학 순위 자료를 이용한 그룹은 다음과 같다.

[표 1] 대학 유형 구분<sup>1)</sup>

그룹명	범주
rank1 최상위권 대학	4년제 대학교: 1위 - 10위 <sup>2)3)</sup>
rank2 상위권 대학	4년제 대학교: 11위 - 20위
rank3 중위권 대학	4년제 대학교: 21위 - 30위
rank4	4년제 대학교: 기타
rank5	전문대학

- 주 1: 대학 유형 구분은 중앙일보 대학평가 2008년, 2010년, 2012년 자료를 이용하였음.  
 2: 전공계열별 분석에서의 편향 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 대학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이로 인해 일반 교육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POSTECH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3: 분교가 있는 경우 주 캠퍼스와 지방 캠퍼스를 분리해서 적용하였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 등급별 졸업인원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rank1 - rank3은 대체적으로 5-6% 내외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대 졸업생은 감소하고 있어 상대 비중 또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 대학 등급별 졸업 인원 현황

	2008	2010	2012
4년제 대학교(1-10)	24,470 (5.0)	28,802 (6.2)	28,843 (5.8)
4년제 대학교(11-20)	22,863 (4.7)	25,537 (5.5)	28,461 (5.7)
4년제 대학교(21-30)	28,004 (5.7)	30,212 (6.5)	30,177 (6.1)
4년제 대학교(기타)	208,355 (42.5)	193,171 (41.6)	223,528 (45.0)
전문대학	206,295 (42.1)	186,470 (40.2)	186,178 (37.4)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는 표본 추출률을 고려하여 표본자료를 유사 모집단화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표본 추출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다.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소수점 자리수를 가지지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방법으로 상수화하여 모집단을 추정하고자 한다.

학교 그룹별로 경제활동 참여율, 고용률,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대기업 취업률 현황 및 변동을 추정해보자.

우선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일수록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상위학교 진학이나 유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는데 기인한다.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대학 등급의 모든 유형에서 경제활동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청년 고용의 어려움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고용률을 보자. 고용률은 해당 그룹의 전체 졸업생 대비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고용률의 경우도 경제활동 참여율과 마찬가지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활동 참여율의 변동 원인과 동일한 관점에서의 움직임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표 3] 대학 등급별 고용 현황

	경제활동참여율			고용률			취업률		
	'08	'10	'12	'08	'10	'12	'08	'10	'12
4년제 대학교(1-10)	0.73	0.72	0.67	0.72	0.71	0.64	0.98	0.98	0.97
4년제 대학교(11-20)	0.78	0.77	0.71	0.77	0.74	0.68	0.98	0.96	0.96
4년제 대학교(21-30)	0.79	0.74	0.73	0.75	0.72	0.70	0.96	0.97	0.96
4년제 대학교(기타)	0.79	0.80	0.77	0.76	0.77	0.73	0.97	0.96	0.95
전문대학	0.82	0.83	0.80	0.78	0.80	0.77	0.96	0.96	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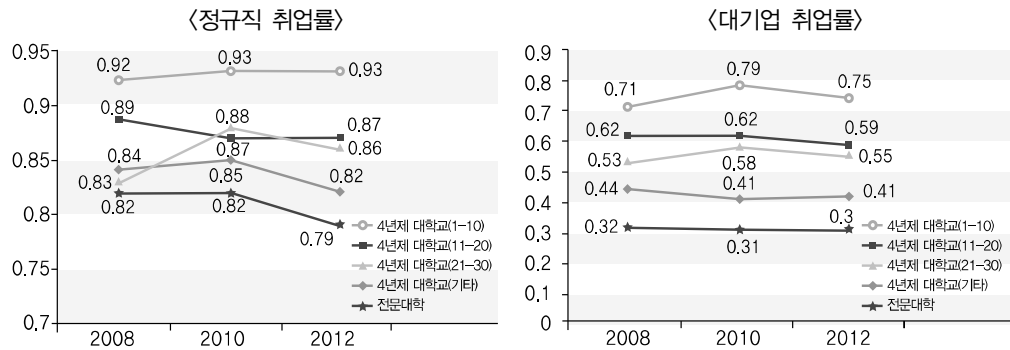
	정규직 취업률			대기업 취업률		
	'08	'10	'12	'08	'10	'12
4년제 대학교(1-10)	0.92	0.93	0.93	0.71	0.79	0.75
4년제 대학교(11-20)	0.89	0.87	0.87	0.62	0.62	0.59
4년제 대학교(21-30)	0.83	0.88	0.86	0.53	0.58	0.55
4년제 대학교(기타)	0.84	0.85	0.82	0.44	0.41	0.41
전문대학	0.82	0.82	0.79	0.32	0.31	0.30

취업률은 경제활동 참여자 가운데 취업자 비중을 의미한다. 졸업한 학교 유형별로 보면, 상위권 대학으로 올수록 다소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위권 대학과의 수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어 그룹 간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즉, 취업률은 학교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를 요약하면, 취업률은 그룹 간 유사한 분포를 보이나, 고용률은 상위권 대학에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위권 대학 졸업생들의 경우 취업보다는 다른 활동-예: 대학원 진학, 유학, 고시준비 등-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고용률과 취업률 모두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school to work)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하지만 졸업한 학교의 유형(등급)별로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과 같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엔 고용률을 통해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이후의 분석에서는 취업률 변수를 성과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림 2] 연도별 대학 유형에 따른 취업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규직 취업률이나 대기업 취업률의 경우엔 학교 유형별로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정규직 취업률을 보면, 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청년일수록 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격차는 최근 시점에 가까울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격차는 최상위 그룹과 나머지 다른 그룹들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구분선이 되고 있다.

또한 상위권 대학(rank2)과 중위권 대학(rank3) 간에는 정규직 취업률이 연도에 따라 순위가 혼재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노동시장에 있어서 학력철폐 등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최상위권(rank1)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어 정책의 효과가 학력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대기업 취업률의 경우에도 정규직 취업률의 분포와 유사하게 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일수록 대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격차는 2008년에 비해 2012년으로 올수록 더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이어 진행될 임금 분석에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확인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학교 유형별로 졸업 후 임금은 어떠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변동이 어떠한지 살펴해보도록 하자.

먼저, 2012년을 기준으로 대학 유형별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rank1(287.2만 원) > rank2(243.8만 원) > rank3(235.7만 원) > rank4(212.2만 원) > rank5(182.0만 원)로 졸업학교 유형 간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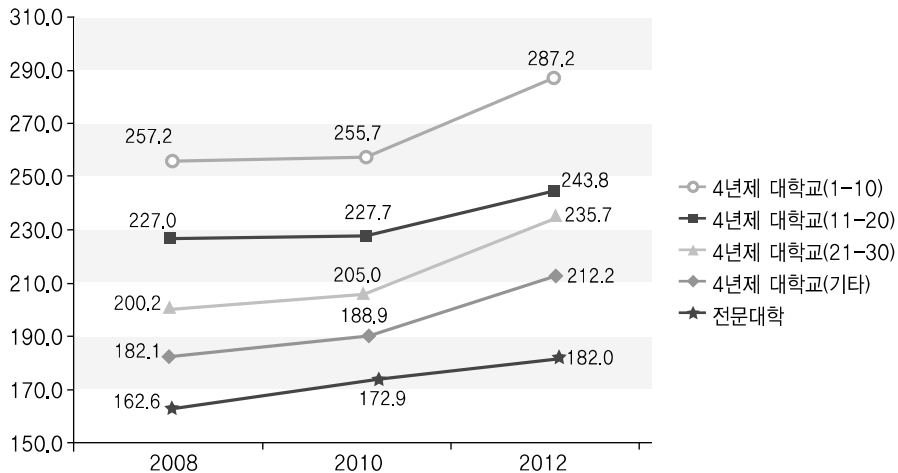
다음으로 4년제 최상위권 대학(rank1) 졸업생의 월평균 임금 변동을 보면, 2008년 257

만 원에서 2012년 287만 원으로 16만 원가량 상승하여 약 6.5%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상위권 대학(rank2) 졸업생도 마찬가지로 2008년 227만 원에서 2012년 244만 원으로 12만 원가량 상승하여 약 5.5%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상위권 대학 졸업생의 월평균 임금 변동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최상위권 대학과 상위권 대학 간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중위권 대학(rank3) 졸업생과 기타 대학(rank4) 졸업생의 월평균 임금 상승률은 각각 13.0%와 10.5%로 상위권 대학(rank2)과의 임금 격차는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대학 등급별 월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			임금 변동		그룹 간 임금격차			상대임금		
	'08	'10	'12	'12 -'10	변동 비율	'08	'10	'12	'08	'10	'12
4년제 대학교(1-10)	257.2	255.7	287.2	16.3	6.5	-	-	-	100.0	100.0	100.0
4년제 대학교(11-20)	227.0	227.7	243.8	12.3	5.5	30.2	28.0	43.4	88.3	89.1	84.9
4년제 대학교(21-30)	200.2	205.0	235.7	25.9	13.0	26.9	22.7	8.1	77.8	80.2	82.1
4년제 대학교(기타)	182.1	188.9	212.2	18.9	10.5	18.1	16.0	23.5	70.8	73.9	73.9
전문대학	162.6	172.9	182.0	12.2	7.4	19.5	16.0	30.2	63.2	67.6	63.4

[그림 3] 연도별 대학 등급에 따른 월평균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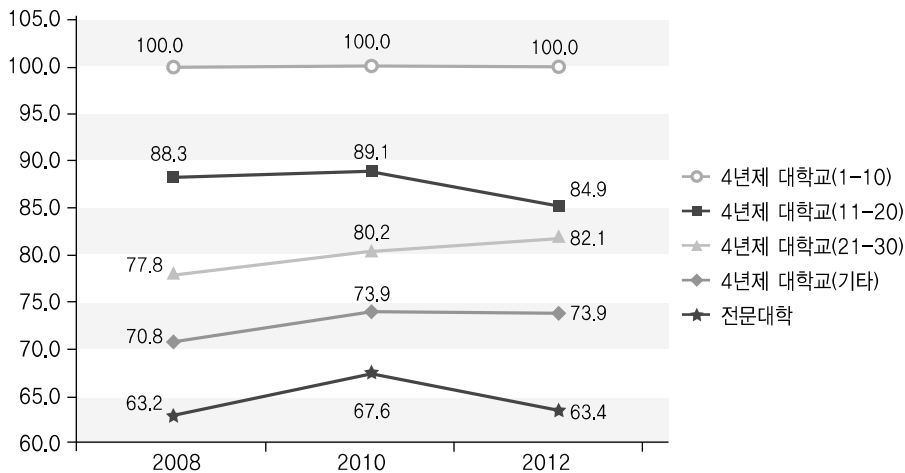


이러한 특성들은 최상위 대학 졸업생들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 상대임금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2008년의 경우 최상위권 대학 졸업생들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상위권 대학 88.3%, 중위권 대학 77.8%, 기타 4년제 대학교 70.8%, 전문대학 63.2%의 임금 격차 즉,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 프리미엄은 최근 들어 최상위권 그룹과, 그 외 4년제 대학 중상위 졸업생 그룹, 4년제 기타 대학교와 전문대학 졸업생 그룹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최상위 대학 졸업생의 임금 프리미엄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둘째, 상위권 대학 졸업생과 중위권 대학 졸업생 간 임금 프리미엄 갭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4년제 기타 대학교 졸업생과 전문대 졸업생의 임금 프리미엄은 최상위권 대학에 비해 유지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졸업생 간 또는 4년제 대학교 내에서의 졸업학교 유형별 임금 프리미엄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최근 들어 최상위 그룹의 임금 프리미엄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어 소위 말하는 명문대 효과가 존재하고 그 크기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4년제 기타 대학교(rank4)와 전문대(rank5)의 임금 프리미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 고등교육의 신호기재적 의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4] 연도별 대학 등급에 따른 상대임금 비중



그렇다면, 대학 전공 학과별로 학교 등급에 따라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추세가 어떠한지 살펴보자.

전공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 계열의 7개 대분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전공별 월평균 임금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2012년을 기준으로 전공별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인문계열이 192만 원, 사회계열이 206만 원, 교육계열이 225만 원, 공학계열이 232만 원, 자연계열이 193만 원, 의약계열이 218만 원, 예체능 계열이 166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육 계열이 2008년에 비해 48%가량 상승하여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사회계열이 8.7%가량만이 상승하여 가장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표 5] 대학 전공별 월평균 임금

	2008	2010	2012	'12-'10	변동비율
인문계열	175.6	179.0	191.7	16.2	9.2
사회계열	189.9	193.2	206.3	16.5	8.7
교육계열	152.7	164.4	225.4	72.8	47.6
공학계열	197.5	214.0	232.2	34.7	17.6
자연계열	166.6	175.8	193.4	26.8	16.1
의약계열	199.5	206.9	218.2	18.7	9.4
예체능계열	140.7	152.3	165.8	25.1	17.8

즉, 현재의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변동비율이 높은 교육, 예체능, 공학, 자연 계열의 경우 임금 프리미엄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고, 변동비율이 낮은 사회, 인문, 의약 계열의 경우 임금 프리미엄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 전공 계열별로 나누어 학교 유형별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자.

인문계열의 경우 최상위권 대학(rank1)의 임금 변동 비율이 다른 유형의 대학 졸업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최상위권 대학과 그 외 대학 간의 임금 프리미엄 갭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상위권 대학(rank2)의 월평균 임금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2년에는 최상위권 대학 졸업생 월평균 임금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회계열의 경우 전체적으로 전공유형 가운데 가장 작은 8.7%의 월평균 임금 변동 비율을 보였다. 또한 최상위 대학(rank1) 대비 상대임금 비중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rank2(82.7→87.8), rank3(69.4→80.9), rank4(65.4→71.3), rank5(58.1→60.8)로 상승하여 최상위권 대학과의 임금 프리미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계열의 경우엔 전공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47.6%의 변동비율을 보여 전공 간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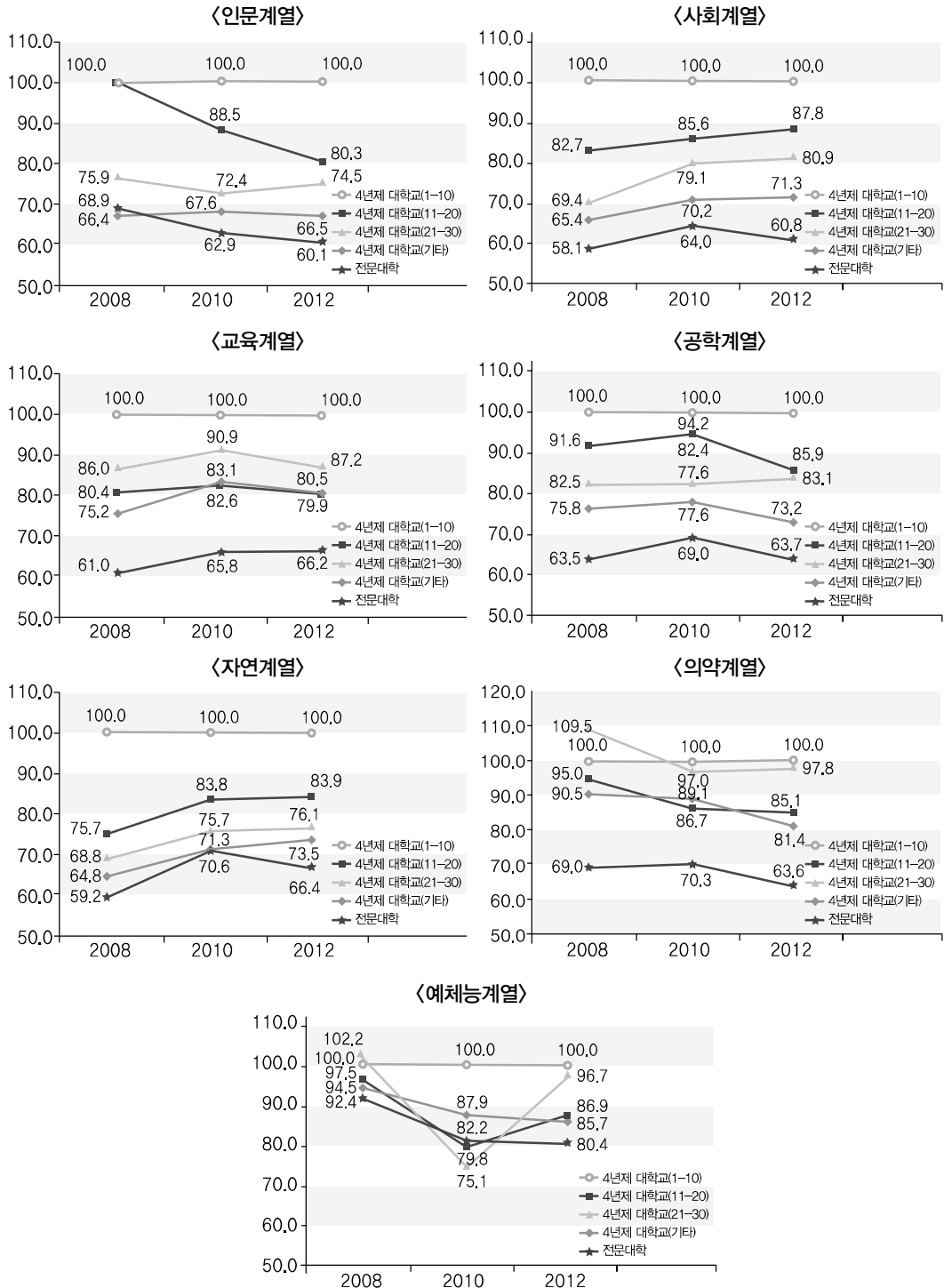


프리미엄이 증가한 계열이다. 전공계열 내에서의 임금 프리미엄 변동을 보면, 상위권 대학(rank2) 및 중위권 대학(rank3), 기타 4년제 대학(rank4)은 감소하여 최상위권 대학(rank1)과의 임금 프리미엄 갭은 증가하고 있다.

[표 6] 전공 및 대학 등급별 월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			임금 변동		그룹 간 임금격차			상대임금		
		'08	'10	'12	'12 -'10	변동 비율	'08	'10	'12	'08	'10	'12
인문 계열	rank1	240.3	249.4	272.2	31.8	13.2	-	-	-	100.0	100.0	100.0
	rank2	240.4	220.8	218.6	-21.7	-9.0	0.0	28.6	53.5	100.0	88.5	80.3
	rank3	182.4	180.6	202.8	20.4	11.2	58.0	40.2	15.8	75.9	72.4	74.5
	rank4	159.5	168.5	180.9	21.4	13.4	22.9	12.1	21.9	66.4	67.6	66.5
	rank5	165.5	156.9	163.6	-2.0	-1.2	-6.1	11.6	17.3	68.9	62.9	60.1
사회 계열	rank1	288.8	272.6	291.9	3.1	1.1	-	-	-	100.0	100.0	100.0
	rank2	238.8	233.3	256.4	17.6	7.4	50.0	39.2	35.5	82.7	85.6	87.8
	rank3	200.5	215.6	236.1	35.6	17.7	38.2	17.7	20.3	69.4	79.1	80.9
	rank4	189.0	191.3	208.1	19.1	10.1	11.5	24.3	28.0	65.4	70.2	71.3
	rank5	167.9	174.3	177.4	9.4	5.6	21.1	17.0	30.7	58.1	64.0	60.8
교육 계열	rank1	210.9	210.9	240.2	29.3	13.9	-	-	-	100.0	100.0	100.0
	rank2	169.6	174.1	192.0	22.4	13.2	41.4	36.7	48.2	80.4	82.6	79.9
	rank3	181.3	191.7	209.5	28.2	15.6	-11.7	-17.5	-17.5	86.0	90.9	87.2
	rank4	158.5	175.2	193.4	34.9	22.0	22.8	16.4	16.1	75.2	83.1	80.5
	rank5	128.6	138.7	159.0	30.4	23.6	29.9	36.5	144.4	61.0	65.8	66.2
공학 계열	rank1	272.1	277.4	319.8	47.7	17.5	-	-	-	100.0	100.0	100.0
	rank2	249.2	261.2	274.8	25.6	10.3	22.9	16.1	45.0	91.6	94.2	85.9
	rank3	224.5	228.5	265.9	41.4	18.4	24.7	32.7	8.9	82.5	82.4	83.1
	rank4	206.3	215.2	233.9	27.7	13.4	18.2	13.3	31.9	75.8	77.6	73.2
	rank5	172.8	191.3	203.8	31.0	17.9	33.5	24.0	30.2	63.5	69.0	63.7
자연 계열	rank1	252.8	235.9	260.9	8.1	3.2	-	-	-	100.0	100.0	100.0
	rank2	191.3	197.5	218.9	27.5	14.4	61.5	38.3	42.0	75.7	83.8	83.9
	rank3	173.9	178.5	198.5	24.6	14.1	17.4	19.1	20.4	68.8	75.7	76.1
	rank4	163.9	168.3	191.7	27.8	17.0	10.0	10.2	6.8	64.8	71.3	73.5
	rank5	149.6	166.6	173.1	23.5	15.7	14.3	1.7	18.6	59.2	70.6	66.4
의약 계열	rank1	257.4	265.9	305.5	48.1	18.7	-	-	-	100.0	100.0	100.0
	rank2	244.4	230.4	259.9	15.5	6.4	13.0	35.4	45.5	95.0	86.7	85.1
	rank3	281.9	257.9	298.6	16.7	5.9	-37.5	-27.4	-38.7	109.5	97.0	97.8
	rank4	232.9	236.9	248.7	15.8	6.8	49.0	21.0	49.9	90.5	89.1	81.4
	rank5	177.6	187.0	194.3	16.6	9.4	55.3	49.9	54.5	69.0	70.3	63.6
예체능 계열	rank1	149.9	179.1	197.7	47.8	31.9	-	-	-	100.0	100.0	100.0
	rank2	146.2	142.9	171.8	25.6	17.5	3.7	36.1	26.0	97.5	79.8	86.9
	rank3	153.3	134.5	191.2	37.9	24.7	-7.1	8.4	-19.4	102.2	75.1	96.7
	rank4	141.7	157.4	169.4	27.7	19.6	11.5	-22.9	21.7	94.5	87.9	85.7
	rank5	138.6	147.2	159.1	20.5	14.8	3.2	10.2	10.4	92.4	82.2	80.4

[그림 5] 연도 및 전공계열별 대학 등급에 따른 상대임금 비중



반면 전문대학(rank5)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 최상위권 대학의 임금 프리미엄이 증가하면서 상위권 이하 대학의 프리미엄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공학계열의 경우엔 최근 들어 상위권 대학(rank2) 이하의 대부분의 졸업생들의 상대임금이 최상위권 대학(rank1)에 비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최상위권 대학의 임금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자연계열은 상위권 이하 대학들의 임금 프리미엄 상승으로 인해 최상위권 대학의 임금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최상위 대학(rank1) 대비 상대임금 비중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rank2(75.7→83.9), rank3(68.8→76.1), rank4(64.8→73.5), rank5(59.2→66.4)로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인 임금 프리미엄은 감소하였다.

의약계열은 의사와 같은 고소득 직종의 포함으로 인해 대학 유형 간 프리미엄의 존재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학 등급의 경우 종합 순위로 분류한 개념이어서, 의대가 있는 하위권 종합대학(예: 가톨릭대)의 임금 프리미엄이 오히려 상위권 학교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논지에서 예체능 계열도 대학 등급 간 임금 프리미엄의 존재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IV. 실증분석

본 장에서는 앞 장의 기초통계분석에 이어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총 4개의 모형을 분석하였는데 학교 프리미엄이 취업, 대기업 취업, 임금, 그리고 임금불균등에 미치는 수준을 살펴보았다.

모형에서는 취업여부, 대기업 취업여부의 이항변수를 이용하여 로짓분석을 통해 취업 및 대기업 취업의 확률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OLS분석을, 임금불균등에 미치는 요인의 분석에서는 회귀기반 분해(Regression based Decomposition)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에 앞서 회귀기반 분해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회귀기반 분해법 분석을 통해 각 대학 유형별 임금불균등을 살펴봤다. 이 분해법은 임금불균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세울 때 주로 쓰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일반적인 회귀분석의 경우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도와 그 계수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그 계수는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의 단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으로 분석에 포함된 설명변수들의 계수를 서로 비교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귀기반 분해법을 사용한다. 이 분해법을 사용하면 설명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총 100으로 간주했을 때 각각의 설명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준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종속변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Filed, 2003). 분해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래와 같이 회귀분석 식을 설정한다.

$$Y = \beta_0 + \sum_{k=1}^K X^k \beta^k + \epsilon \quad (1)$$

위의 식을 회귀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langle\langle (\hat{\beta}, \hat{\beta}^1, \dots, \hat{\beta}^K) \rangle\rangle \quad (2)$$

주어진 식(1)과 추정치(2) 그리고  $s(X^k)$ 를 종속변수 Y를 설명하는 k번째 요인하면 종속변수 Y의 분산은 식(3)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var(Y) = \sum_{k=1}^K cov[X^k \hat{\beta}^k, Y] + cov[\hat{\epsilon}, Y] \quad (3)$$

식(3)을  $var(Y)$ 로 나누게 되면,

$$100\% = \frac{\sum_{k=1}^K cov[X^k \hat{\beta}^k, Y] + cov[\hat{\epsilon}, Y]}{var(Y)} \equiv \sum_{k=1}^K s(X^k) + s(\hat{\epsilon}) \quad (4)$$

여기서 각각의 “s-weight”  $s(X^k)$ 는 식(5),  $s(\hat{\epsilon})$ 는 식(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X^k) = \frac{cov[X^k \hat{\beta}^k, Y]}{var(Y)} \quad (5)$$

$$s(\hat{\epsilon}) = \frac{cov[\hat{\epsilon}, Y]}{var(Y)} \quad (6)$$

식(4)에서 잔차항을 제거하면 아래와 같은 항이 남게 되는데

$$\sum_{k=1}^K s(X^k) = \frac{\sum_{k=1}^K cov[X^k \hat{\beta}^k, Y]}{var(Y)} \quad (7)$$

위식은 정확히  $R^2$ 와 일치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s(X^k)$ 는 k변수가  $R^2$ 에 기여하는 정도로 표시할 수 있는데 그것을 “p-weight”로 나타내면 식(8)과 같다.

$$p(X^k) \equiv \frac{s(X^k)}{R^2} \quad (8)$$

따라서  $p(X^k)$ 의 합은 정확히 100%가 되는 것이다<sup>3)</sup>.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각 연도별 학력프리미엄이 임금불균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sup>4)</sup>. 통제변수로는 성별, 나이, 나이제곱, 전공, 정규직여부와 노조조직유무를 포함했다. 로짓분석 표에서 나타난 수치들은 모두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나타낸다.

먼저, 성별의 경우는 3개년도 모두 음의 부호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취업에서는 남성 에 비해 취업확률이 낮음을 의미한다. 나이의 경우 양의 부호로 나이 제곱항은 음으로 나타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취업할 확률은 증가하나 그 증가하는 정도가 체감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학교순위는 다음과 같다. 최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2008년, 2010년, 2012년 대부분 학교순위가 낮아질수록 취업할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추세는 시간 흐름에 따라 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에 횡

3) 보다 상세한 내용과 응용에 관해서는 Gary S. Fields(2003)의 “Regression-Based Decomposition: A New Tool for Managerial Decision-Making”을 참고.

4) 자세한 Regression Based Decomposition 분석결과는 부록에 첨부하였음.

단면분석에서 나타난 연구들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계열 전공의 경우 인문계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의학계열에서 가장 취업이 좋았으며 공학, 예체능의 순으로 인문계열보다는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 자연 계열의 경우 인문계열에 비해 취업확률이 낮으며 이 추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 해당 계열전공자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취업률 분석결과

VARIABLES	Dependant=취업여부		
	2008년	2010년	2012년
성별	-0.003*** (0.0077)	-0.001*** (0.0075)	-0.008*** (0.0080)
나이	0.034*** (0.0047)	0.040*** (0.0040)	0.041*** (0.0044)
나이2	-0.0396** (0.0063)	-0.047*** (0.0052)	-0.050*** (0.0060)
Rank2	0.024*** (0.0169)	0.034*** (0.0141)	0.046*** (0.0150)
Rank3	0.023*** (0.0168)	0.026*** (0.0140)	0.063*** (0.0146)
Rank4	0.032*** (0.0135)	0.063*** (0.0112)	0.097*** (0.0123)
Rank5	0.062*** (0.0134)	0.102*** (0.0109)	0.143*** (0.0117)
사회	0.037*** (0.108)	0.031*** (0.0109)	0.057*** (0.0109)
교육	-0.003*** (0.155)	-0.019*** (0.0164)	-0.003*** (0.0161)
공학	0.054*** (0.0107)	0.032*** (0.0114)	0.068*** (0.0111)
자연	-0.007*** (0.0124)	-0.022*** (0.0133)	-0.015*** (0.0132)
의학	0.13*** (0.0115)	0.110*** (0.0115)	0.111*** (0.0128)
예체능	0.017*** (0.0125)	0.030*** (0.0125)	0.048*** (0.0123)
Observations	17,576	17,726	17,795

주: 괄호 안의 숫자는 S.D.를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나타냄.

다음은 취업률 못지않게 중요한 취업의 질을 분석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의 질을 대기업 취업여부로 살펴보았다. 대기업 취업에 무조건적인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했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졸자들의 대부분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다. 그리고 각종 복지혜택이 제공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는 선호됨으로 양질의 일자리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앞의 취업률과는 반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대기업의 취업률이 더 높았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낮았다. 학교순위의 경우 최상위권 대학에 비해 2008년 기준으로 순위가 낮아질수록 7.6%, 16%, 26.4%, 33.7% 순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8년에 비해 2012년의 계수 값이 더욱 감소하여 시간이 갈수록 그 확률은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결과와 함께 생각해 보면 취업확률은 증가하지만 일자리 질은 대학순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여 학력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며 이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8] 대기업 취업률 분석결과

VARIABLES	Dependant=대기업 취업여부		
	2008년	2010년	2012년
성별	0.050*** (0.0106)	0.084*** (0.0104)	0.089*** (0.0106)
나이	-0.003*** (0.0067)	-0.014*** (0.0059)	-0.025*** (0.0062)
나이2	-0.003*** (0.0093)	0.009*** (0.0079)	0.024*** (0.0086)
Rank2	-0.076*** (0.0242)	-0.135*** (0.0206)	-0.108*** (0.0212)
Rank3	-0.160*** (0.0207)	-0.191*** (0.0180)	-0.163*** (0.0188)
Rank4	-0.264*** (0.0189)	-0.325*** (0.0163)	-0.284*** (0.0172)
Rank5	-0.337*** (0.0162)	-0.386*** (0.0143)	-0.342*** (0.0152)
사회	0.062*** (0.0162)	0.051*** (0.0165)	0.037*** (0.0162)
교육	-0.244*** (0.0167)	-0.283*** (0.0159)	-0.266*** (0.0151)
공학	0.095*** (0.0160)	0.058*** (0.0172)	0.066*** (0.0166)
자연	0.070*** (0.180)	0.021*** (0.0190)	0.002*** (0.0182)

VARIABLES	Dependant=대기업 취업여부		
	2008년	2010년	2012년
의학	0.072*** (0.0221)	0.088*** (0.0218)	0.043*** (0.0217)
예체능	-0.177*** (0.0161)	-0.157*** (0.0170)	-0.175*** (0.0154)
Observations	13,662	13,916	13,192

주: 괄호 안의 숫자는 S.D.를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나타냄.

다음은 대학프리미엄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OLS로 분석한 결과이다. 대부분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임금수준이 높아지므로 분석모형에서는 정규직여부 더미 변수와 사업장의 노조조직 유무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대학순위에 따라 임금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순위에 따라 나타나는 임금수준의 차이는 2008년에 비해 2010년에 조금 줄어들었지만 2012년에 다시 증가해 여전히 임금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최상위 그룹과 비교했을 때 기초통계에서도 나타났듯이 3위 그룹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학교들이 경쟁을 통한 노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4, 5 순위 그룹의 경우 최상위 그룹에 비해 2012년에도 25%, 35%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그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표 9] 임금수준 분석결과

VARIABLES	Dependant=lnWage		
	2008년	2010년	2012년
성별	0.120*** (0.00794)	0.142*** (0.00771)	0.119*** (0.00702)
나이	0.0619*** (0.00510)	0.0532*** (0.00447)	0.0416*** (0.00416)
나이2	-0.0678*** (0.00712)	-0.0596*** (0.00611)	-0.0423*** (0.00586)
Rank2	-0.120*** (0.0188)	-0.0779 (0.0172)	-0.123*** (0.0161)
Rank3	-0.201*** (0.0188)	-0.187*** (0.0168)	-0.160*** (0.0162)
Rank4	-0.269*** (0.0143)	-0.232*** (0.0126)	-0.251*** (0.0122)
Rank5	-0.356*** (0.0152)	-0.310*** (0.0135)	-0.349*** (0.0130)



VARIABLES	Dependant=lnWage		
	2008년	2010년	2012년
사회	0.0651*** (0.0120)	0.0337*** (0.0123)	0.0408*** (0.0108)
교육	0.0124 (0.0168)	0.0568*** (0.0177)	0.0392** (0.0153)
공학	0.104*** (0.0119)	0.0901*** (0.0128)	0.108*** (0.0110)
자연	0.00614 (0.0133)	-0.00635 (0.0142)	0.00703 (0.0124)
의학	0.186*** (0.0161)	0.192*** (0.0159)	0.185*** (0.0140)
예체능	-0.0807*** (0.0140)	-0.0547*** (0.0145)	-0.0498*** (0.0125)
정규직	0.499*** (0.00968)	0.594*** (0.00977)	0.317*** (0.00841)
노조유무	0.264*** (0.0113)	0.214*** (0.0116)	0.197*** (0.0112)
Constant	3.637*** (0.0866)	3.742*** (0.0767)	4.315*** (0.0698)
Observations	12,881	13,277	11,956
R-squared	0,365	0,375	0,329

주: 괄호 안의 숫자는 S.D.를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나타냄.

다음은 회귀기반 분해 결과이다. 임금불균등에 미치는 요인들을 성별, 나이, 대학순위, 전공, 종사상 지위, 노조유무로 살펴보았다. 회귀분석과는 다르게 각 요인들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고 시간에 따라 각 요인들이 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임금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은 종사상 지위가 가장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성별과 나이에 따른 임금격차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순위의 경우 2008년 13.4%에서 2010년 11.8% 줄어든다 2012년에 22.5%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 3위권 대학에서 그 격차를 줄이고 있지만 4, 5위권 대학에서 그 격차를 줄이지 못해 발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0] 회귀기반 분해결과

	2008년	2010년	2012년
성별	14,537	15,053	20,867
나이	7,836	5,071	11,041
대학순위	13,351	11,821	22,471
전공	0,597	0,007	0,019
종사상 지위	49,954	59,421	35,730
노조	13,725	8,641	9,872
Total	100	100	100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개인적 속성과 더불어 중요한 요소인 학력이 취업 및 일자리 질, 그리고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의 2008, 2010, 2012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대학순위 정보는 매년 중앙일보에서 발표하는 대학순위를 이용하였다. 대학순위를 1위부터 5위까지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대학순위가 낮을수록 취업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일자리 수준을 가늠하고자 사용한 대기업 취업여부와 임금 수준 분석에서는 여전히 학력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 3위권 대학 졸업자 임금수준의 경우 최상위권 대학졸업자와 격차를 줄이고 있어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4위, 5위권 대학의 임금수준은 최상위권 대학에 비해 25%, 35%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회귀기반 분해 방법을 통해 살펴본 학력이 임금불균 등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에 비해 2010년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2012년에 다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1996년 도입된 대학설립자유화로 인해 대학의 수가 급증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전 대학이 가지고 있는 신호효과가 대학졸업자 급증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제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우수한 인재에 대한 선별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재채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증된 인적자원을 뽑을 유인이 높아진다.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 소위 검증된 상위 명문대에서 대기업 혹은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 취업에 집중됨에 따라 오히려 이전 보다 학력에 따른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상황은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대학,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기업은 인력 활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검증받았다고 인지하는 인력 선호현상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상위권 대학졸업자 유치경쟁으로 이어져 임금상승 효과를 유발한다. 적정수준의 경쟁을 넘어서 과열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선호가 낮은 하위권 졸업자들의 임금 상승은 없거나 미미하여 결국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교육 투자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명문대 효

과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즉, 신호기재 효과 감소로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자의 취업사교육, 자격증취득비용, 어학연수 비용 등 학력 효과나 명문대 효과를 보완하기 위한 사적 투자를 선택하게 되고 이는 결국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을 시사한다.

현재 높은 진학률과 진학대상 인구의 감소로 정부에서도 대학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진행 중에 있다.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이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의 학부교육 경쟁력 강화 노력이 제대로 평가 받도록 2013년 기준 80개 학교를 적정규모의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에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 교육여건 제고를 위해 2013년 기준 전년대비 15.8%를 증액해 1,437억 원을 지원하였다<sup>5)</sup>.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이러한 노력이 상위대학(2그룹)과 차상위대학(3그룹)대학의 임금과 취업 질의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교내취업, 입학당시 취업자를 포함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내취업 상한제, 입학당시 기취업자 제외 등의 요건을 두고 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사업은 학령인구가 급감하여 2018년부터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학설립자유화로 대학이 양적으로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질적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1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전공지식이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인문계열 40.6%, 자연계열 48.8%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자신의 일자리에 도움도 되지 않는 교육을 받느라 물적, 인적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에는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전체적인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로 판단된다. 평가대상에 포함된 대학들 중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업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지정된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여 학생들의 대학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학의 강점분야를 특화하고 경쟁력제고를 위해 정원조정을 권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이 대학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해쳐 진정한 교육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정원부족으로 대학유지가 어렵고 부실대학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앞서 살펴본 정책들의 시행은 한국 전체 대학교육의 질 저하로 인한 더 큰 비용의 지불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

5) 수도권 대학의 경우 2013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3%를 증액하여 지방대학 지원이 대폭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특정 대학이나 학과에 대해 면제부를 주거나 예산나뉘먹기식의 지원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상위그룹과 차상위그룹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듯이 하위그룹의 경쟁력강화 및 조정으로 상위그룹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성화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의 필요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에서 교육할 필요가 없는 학과들이 거창한 이름하에 개설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 학과는 특정 시기에 유행 혹은 인기에 편승하여 학생들을 유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검증되지 않는 교수진을 인기 위주로 초빙해 부실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게 되면 학과가 없어지거나 통폐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학생과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임으로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다. 지원에 있어서도 적은 금액으로 많은 대학을 지원하는 것보다 우수한 대학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대학 서열화로 인한 양극화와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 김진영(2007).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한국경제의 분석, 13(3), 1~61.
- 류장수(2003). “지방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과 특성-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직업능력개발연구, 6(1), 1~25.
- 오호영(2007).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성과-지방대생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0(2), 87~118.
- 이규용·김용현(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3(2), 69~93.
- 이정우(1995). “교육과 소득분배”. 비봉출판사, 70~104.
- 이주호 외(2003). “한국 대학의 서열과 경쟁”. 경제학연구, 51(2), 5~36.
- 장원섭 외(2000).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해외문헌]

---

- Becker, G.(1975),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National.
- Genda, Yuji and Masako Kurosawa(2001).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in Japan.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15(4), 465~488.
- Mincer, J.(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Columbia University Press.
- Rosenbaum, P. R. & Rubin, D. B.(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1), 41~55.